

오웬과 전봉건의 전쟁시 비교 고찰

이 승 규*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II. 현장성의 실현과 반전시의 지향 : |
| II. 전쟁의 비극적 인식과 고발 : | 전봉건의 전쟁시 |
| 윌프레드 오웬의 전쟁시 | IV. 나가며 |

국문초록

전쟁시는 전쟁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 시로, 현대에 들어와서야 전쟁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전쟁시가 출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영국의 시인 윌프레드 오웬(Wilfred Owen)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더불어 전쟁에 대한 의식적인 부정을 표현하였다. 6·25전쟁기 남북한의 전쟁시가 전쟁을 독려하고 중국에는 각 진영의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옹호하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오웬과 전봉건의 시는 직접적인 전쟁 체험을 통해 현장성을 살리고 낡은 정치의식을 극복하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봉건은 전쟁에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전장의 상황을 묘사하는 시를 썼다는 점에서 오웬의 시와 공통점을 지니며, 기법적으로도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다

* 국민대 강사

만 전봉건의 전쟁시는 전쟁의 참상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외적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내적 반응으로서의, 감정을 거의 제거한 독백적 진술이나 상황과의 모순적인 대응 태도,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묘사를 통해, 비정하고 폭압적인 전쟁 현장과 위태로운 개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리하여 전봉건의 시가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성을 띠지 않지만, 내면적 현실을 현장성을 살려 실감 있게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쟁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제어 : 전쟁시, 오웬, 전봉건, 6·25전쟁, 현장성, 반전

I. 들어가며

세계의 역사는 종족과 국가 간 교류와 화합만큼이나 갈등과 분쟁 속에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세계 문학에서 전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은 많다. 전쟁을 중심 내용이나 소재로 삼은 시를 전쟁시라고 할 때,¹⁾ 고대의

-
- 1) 전쟁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정착된 전쟁문학의 한 갈래에 속하며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전쟁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반전문학으로 전개되었다. 반전문학이 전쟁문학의 좁은 개념에 속한다면 전쟁을 독려하는 선전선동시나 그 밖의 르포르, 귀향문학, 전쟁서정시 등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은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 전쟁시를 넓은 개념의 전쟁문학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여전히 용어상의 혼란은 남아 있다. 전쟁문학보다 전후문학(戰後文學)이라는 개념이 더 자주 쓰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의 비정함을 밝히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전후문학이 넓은 의미의 전쟁문학 개념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후문학과 마찬가지로 전후시가 ‘전쟁 이후’라는 시기적인 의미가 있고 휴머니즘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전후시와는 별도로 전쟁시를 중심에 놓고 그 밖의 다양한 갈래들, 즉 전쟁서정시, 전장시(戰場詩), 참전시, 종군시 등과 함께 아우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전쟁시의 갈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오세영의 「6·25와 한국전쟁시」(『한국 근대문학과 근대시』, 민음사, 1996), 임도한의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전쟁시」(이기운·신영덕·임도한,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국학자료원, 2003)를 참고할 수 있다.

<일리아드>에서부터 중세 시기까지는 영웅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의 활약상을 그리거나 승리를 회귀하고 찬양하는 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시들은 거의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상층계급의 관점에서 작품이 쓰여 전쟁의 전모와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전쟁시가 전쟁의 실체를 비춰주고 전쟁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라고 볼 수 있다. 현대 과학의 획기적인 발달로 전쟁은 전 지구적인 살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두 번의 세계대전이 지난 뒤에도 무수한 국지전이 벌어졌으며, 남북한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아직도 군사적인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전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국지전의 또 다른 모습이며, 그것은 집단 간 전쟁의 도화선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현대인의 의식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언제든지 전쟁터로 바뀔 수 있다는 깊은 불안의식이 내재해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전쟁시는 6·25전쟁을 소재로 한 것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남한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자 다수의 문인들이 국방부 정훈국의 종군작가단을 통해 전쟁에 참여하였다. 특히 1·4후퇴 후 조직한 2차 종군작가단은 육·해·공군별로 기관지를 댔으며 문인들은 그 밖의 여러 신문과 잡지를 통해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쟁기와 그 직후에 시인 개인별로 종군시집을 상재하기도 하였다.²⁾ 북한의 시인들도 광복 후 『조선문학』과 『문학예술』 등의 잡지에 전투를 독려하고 적군에 대해 적개심을 고취하는 시를 발표하였다. 또한 전쟁기에는 군대를 따라 전쟁터를 누비며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전쟁시는 작품을 통해 문학적 이념을 체계화하고 문학을 사회주의 정치노선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2) 대표적인 시집을 일별하자면, 1951년에 유치환의 『보병과 더불어』, 이영순의 『연회고지』, 조영암의 『시산을 넘고 혈해를 건너』, 1952년에 장호강의 『총검부』, 1956년에 구상의 『초토의 시』 등이 출간되었다. 1959년에 나온 조지훈의 『역사 앞에서』는 시집의 한 장(章)에 전쟁시를 수록하였으나 그 외에 전쟁과 무관한 서정시들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군시집이라 보기는 어렵다.

남북한의 전쟁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전쟁 상황의 반영과 전쟁에 대한 독려이다. 실제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투 장면 묘사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관습적인 표현이 많거나 직·간접적으로 체제나 이념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³⁾ 물론 보편적인 인간애를 표현하거나 전쟁의 참상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으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전쟁 현장을 생생하게 살리거나 이념을 넘어서 전쟁에 반대하는 성격은 무척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가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지적하고 미약하나마 현실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각각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비해 전봉건의 전쟁시는 1950년대 남북한의 여타 전쟁시와 대별되는 성격을 지닌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1950년 1월에 『문예』를 통해 등단한 그는 전쟁이 터지자 국군 위생병으로 참전하여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었다. 1950년대에 여러 편의 전쟁시를 썼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전쟁을 소재로 하거나 환기하는 시를 발표하였다. 전봉건이 타계한 1988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작품이 <6·25> 연작시라는 점을 볼 때에도 전쟁과 그와의 관련성은 무척 깊다고 할 수 있다.⁴⁾ 그는 아군의 편에서 체제를 옹호하거나 전쟁을 독려하는 작품을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전쟁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견지하는 시를 발표하였다.

한편 윌프레드 오웬(Wilfred Owen)의 시를 전쟁시의 전범(典範)으로 삼아 전봉건의 전쟁시와 비교하는 것은 전봉건의 전쟁시는 물론 한국 현대 전쟁시의 지점을 세계문학의 범위 안에서 탐색해 보려는 시도라

3) 홍용희,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시적 대응 비교 고찰」, 『한국시학연구』 제2호, 한국시학회, 1999, 364-365쪽.

4) 강연호는 전봉건에 대해 “40여 년의 시작 활동을 통해 줄기차게 한국 전쟁의 시적 형상화에 매달린, 거의 유일한 시인”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그의 1950년대 작품을 고찰한다는 것은 “1950년대 한국시의 흐름을 전통 서정과 모더니즘 계열로 단순화시키는 기준틀을 확대하는 데 단서가 될 만”하다고 했다.(강연호, 「1950년대 전봉건 시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8, 6쪽.)

할 수 있다. 전쟁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현장성과 반전성(反戰性)을 상정해 볼 때, 한국 현대 전쟁시에서 전봉건의 전쟁시가 그 두 가지 요건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웬과 전봉건이 경험한 전쟁이 시기적으로 상이하고 전쟁 발발의 정치적·사회적 환경도 서로 복잡다단하게 다르지만, 전쟁의 폭력적인 속성이나 전쟁 속에 놓인 인간의 실존적 상황은 어디까지나 보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봉건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윌프레드 오웬 또한 시인으로 활동하다 군인으로 참전하였고, 전쟁의 현장을 묘사하고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시를 창작하였다. 그런 점에서 1·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가장 각광받는 전쟁시인인 윌프레드 오웬의 시⁵⁾와 전봉건의 시가 지니는 특징과 두 전쟁시 사이의 상통점을 살피는 것은, 한국 현대 전쟁시의 지형도와 함께 전쟁시의 본질과 지향점을 재고하는 데 작은 참조점이 될 것이다.⁶⁾

II. 전쟁의 비극적 인식과 고발 : 윌프레드 오웬의 전쟁시

윌프레드 오웬은 군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쟁 체험을 많은 시로 표현하였다. 그의 전쟁시는 전쟁 영웅을 노래하던 유럽 전쟁시의 전통에서 비껴나 군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전장의 참혹한 실상을 그리는 데 주력하였다.⁷⁾ 오웬은 “전쟁에 대해 어떠한 것도 그려질

5) 이상섭, 「윌프레드 오웬: 연민의 시」, 황동규 외, 『현대영미시연구』, 민음사, 1986, 105쪽.

6) 본고에서 전봉건의 전쟁시를 1950년대 창작한 작품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는 전쟁을 겪고 그 상흔을 치유하는 등 전쟁이 중심을 이룬 시기이지만 1960년대는 전쟁의 피해가 일차적으로 복구되고 4·19혁명을 기점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 싹튼 시기이기에, 1960년 이후의 전쟁시를 전체적으로 살피기에는 복잡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7) 김종길은 1950년대 전쟁기에 오웬의 시를 주목하고 국내에 소개하였다. 현대 영

수 없으며 어느 연기자도 그것을 연기할 수 없으며, 다만 그것을 묘사하고자 한다면 직접 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하는 일 뿐⁸⁾이라 역설할 만큼 전쟁을 피상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체험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것을 통해 전쟁에 직면한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그리하여 전쟁시에 생생한 현장성을 부여하고 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쟁시와 차별된다.⁹⁾ 또한 아군이나 적군을 막론하고 그릇된 애국심으로 전쟁에 내몰린 군인을 탐욕스런 위정자의 희생자로 의식하여, 위기에 처한 군인에 대해 연민을 드러내고 부정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시는 이제 막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어두워가는 좁은 골목길을 군가 부르며
철도 창고까지 행진하여
무겁고 유쾌한 얼굴들로 기차간을 채웠다.

가슴팍은 온통 흰 꽃다발
마치 죽은 사람의 가슴처럼.

국의 전쟁시에 만연했던 낭만의 분위기를 걷어내고 전쟁의 비참함을 획기적으로 반영한 시인은 바로 오웬이라고 지적하였다.(김종길, 「전쟁과 시-일차대전과 영국전쟁시-」, 육군중군작가단, 『전선문학』 제4호, 1953, 13-14쪽 참조.)

8) D. Kerr, 'Introduce_', 『The Works of Wilfred Owen』, Wordworth Editions Ltd, 1994, vii(조규택, 「전쟁과 연민: 휘트먼과 오웬의 전쟁시 읽기」, 『영미어문학』 제83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07, 114쪽 재인용).

9) 1910년경 영국의 시단은 새로운 시의 흐름을 찾지 못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당시의 시인들은 한가한 전원생활에서 소재를 찾고 철학도 빈약했으며 시어의 실험에도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은 다수의 전쟁시인을 배출하여 영국시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E. 토머스, R. 그레이브스, S. 세슨, E. 브룬덴과 함께 등장한 오웬은 그 가운데에서도 탁월한 전쟁시인으로 평가받았다.(문영수, 「WILFRED OWEN 연구-방법론적인 고찰과 더불어-」, 『인문논총』 제19집,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1989, 155쪽 참조.)

(…)

이렇게 비밀스레, 부정을 쉬쉬하듯, 그들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 동네 장정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어느 전선에 투입되었는지 우린 듣지 못했다.

꽃을 준 부인네들의 뜻을 아직도 비웃고 있는지도
우린 알지 못한다.

큰 종소리 울리면서 돌아올 건가?
신나게 열차 가득히?
단 몇 사람만, 복과 환호를 울리기엔 너무 적은 숫자만이
조용한 마을 샹터 가로 말이 기어올라 오리라,
반쯤 잊은 길을 따라서.

- <떠나보냄> 부분

젊은이들의 “무겁고 유쾌한 얼굴들”은 전쟁에 참가하는 그들의 불안과 기대를 드러내면서 전쟁의 실상에 대한 그들의 무지까지도 짐작케 한다. 떠나가는 젊은이들의 가슴팍엔 흰 꽃다발이 안겨 있지만 그것은 죽은 자에게 바치는 조화(弔花)일 뿐으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을 보내는 후방의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터뜨린 정치가들은 “비밀스레, 부정을 쉬쉬하듯” 송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젊은이들 모르게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감추고자 하는 행위이다. 결국 “꽃을 준 부인네들” 즉 전쟁을 찬동하면서 그릇된 애국심을 부추기는 사람들 모두가 살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오웬은 편지에서 정치가뿐만 아니라 종교인까지도 애국을 앞세우면서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기본적 교훈의 하나가 절대 무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불명예와 모멸을 받아라. 그러나 절대로 무기에 의존하지 마라. 압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라. 그러나 죽이지 말라. (...) 교회 강단의 직업적 설교자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또 성공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매우 쓰라린 양심을 지닌 양심적 반전론자가 아닌가요... 그리스도는 무인지경에 계십니다. 거기서 병사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자주 듣지요.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이 말씀은 영어와 프랑스어로만 말해진 것인가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는 순수한 애국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¹⁰⁾

오웬은 양심적인 반전론자이면서 전투에 임해야 하는 장교로서 깊은 갈등을 느껴야 했지만, 그가 도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대다수의 젊은이들을 선동한 ‘순수한 애국심’도 더 근본적인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숭고한 명령’은 개인의 생명을 무가치한 죽음으로 이끄는 허울 좋은 강령일 뿐이다. 그것은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인 독일군에게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피아의 범주를 넘어 그가 전쟁 자체의 폭압과 모순을 함께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웬의 전우애나 연민이 아군뿐만 아니라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적군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의 시 <이상의 만남>은 마치 단테의 <신곡>을 연상시키듯이 죽은 시적 화자가 지옥에 들어가 사자(死者)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 사자는 살아 있을 때 예술적 기질과 열정을 지닌 남자였으나, 죽음을 통해 ‘전쟁의 연민’을 대변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는 시적 화자를 ‘친구’라고 부르며 그가 바로 시적 화자가 죽인 적군이라고 고백한다.

친구여, 나는 당신이 죽인 바로 그 적군ियो.
어둠 속에서 당신을 알아보았소.

10) W. Owen, 이상섭 역주, 『오웬 전집』, 혜원출판사, 2001, 24-25쪽.

어제 날 찢러 죽일 때 그렇게 낯을 찌푸렸었소.
 난 피했지만 내 손은 모든 게 지겹고, 싸늘했었소.
 이제 같이 잠이나 잡시다...

- <이상한 만남> 부분

두 사람은 각각 살인을 저지르고 당한 원수 같은 관계일 수 있지만 죽음 속에서 친구가 된다. 그것은 전쟁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위정자들의 무지와 욕심에서 일어난 것이며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라는 인식에서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적군을 찢러 죽일 때 “그렇게 낯을 찌푸렸”다는 것은 시적 화자 역시 살인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시적 화자는 연민을 통해서 인간적 동질감을 확인하고 전쟁의 모순을 환기하고 있다.¹¹⁾

<즐겁고 합당하도다>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불합리함을 웅변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짐자루에 눌린 늙은 거지 떼처럼 등을 꼬부리고,
 안짱다리로, 노파처럼 기침 짓으며 흙탕길을 욕질하며 헤집었다.
 드디어 유령 같은 불길에 등을 돌리고 먼 휴식처를 향해서 맥빠져
 걸었다.
 자면서 걸었다. 신발을 잃어버린 자도 많았지만
 피범벅 발로 비실댔다. 모두 절뚝였고, 모두 앞이 안 보였다.
 피로에 취해 있었다. 맥빠져 뒤에 떨어지는 포탄 날아오는 소리도
 안 들렸다.

애들아! 독가스, 독가스다! 허위적거림의 황홀,
 제 때에 그 거추장스러운 방독면 쓰기.
 그런데 누군가 아직도 소리치며 비틀대며

11) 살인을 당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저승에서 만나 같이 잠을 자자고 청하는 것은 극적인 장면이면서 역설적인 ‘화해의 순간’이기도 하다.(조규택, 「모운숙의 서사적 전쟁시와 오웬의 사실적 전쟁시 비교」, 『동서비교문화저널』 제16호,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2007, 237쪽.)

불 속 또는 수렁 속에 빠진 양 찢찢맨다.
희미한 유리, 짙은 초록빛을 통해
푸른 바다 밑에서처럼 그가 익사하는 걸 본다.

내 온갖 꿈속에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내 눈앞에서,
토하며, 질식하며, 익사하며 내게로 비틀거리며 다가온다.

어떤 숨 막힌 꿈속에서, 친구여 당신도
그를 던져 실은 수레 뒤를 따르며,
죄짓기가 역겨워진 악마의 낯짝 같은
축 쳐진 얼굴에 히뚝이는 허연 눈을 본다면,
암처럼 더러운, 죄없는 햇바다에 돋은,
극악한 불치의 현대처럼 쓰거운,
독거품에 썩은 폐에서 수레가 흔들릴 적마다
끓어나오는 피를 들을 수 있다면 -
친구여, 것처럼 신바람이 나서
‘즐겁고 합당하도다,
조국을 위하여 죽는 것은’ 따위의
해묵은 거짓말을 말하지 못하리라.

- <즐겁고도 합당하도다>

위 시의 제목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즐겁고 합당하도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이라는 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¹²⁾ 이 시는 정반대의 주장을 제목으로 내세워 시 전체의 반어적인 내용을 초점화하고 있다. 이 시는 분별없는 젊은이들에게 ‘애국’이라는 거짓말로 전쟁에 이끌려가는 다른 시인에게 분개하여 쓴 시라 할 수 있다.¹³⁾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전장의 참혹한 실상으로, 여기서는 전쟁 영웅의 우아함과 그 희생적 활약의 숭고함을 찾아볼 수 없다.¹⁴⁾ 다만 전쟁의 고통과 공포, 절망

12) 위의 책, 72쪽 참조.

13) 이상섭, 「윌프레드 오웬 : 연민의 시」, 위의 책, 120쪽.

14) 위 시에서 독가스에 죽어가는 병사들에 대한 묘사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만이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진실에 더 가깝다는 것을 극진한 묘사를 통해 설득하고 있다. “뒤에 떨어지는 포탄 날아오는 소리”조차 못 들을 정도로 군인들은 피로에 지쳐 있다. 흙탕길을 자면서 걷고 피범벅 발로 절뚝이며 행군한다. 갑자기 엄습한 독가스에 허둥지둥 방독면을 쓰는 위급 상황에서 독가스에 중독돼 죽어가는 병사의 모습은 처절해 보인다. 분명히 오웬의 부하였을 그가 숨이 막혀 비틀비틀 시적 화자에게 다가갈 때 앞에서 손도 못 쓰고 죽음의 현장을 목도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위급상황은 전쟁의 일상적인 단면이기도 하다. 그 광경은 악몽 속에서 거둬 떠오를 만큼 끔찍하다. 수레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죽은 병사의 “죄짓기가 역겨워진 악마의 낯짝 같은 / 축 처진 얼굴에 히뜩이는 허연 눈”은, 정치가의 허위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개인의 희생을 표상한다. 여기서 거둬되는 전투는 곧 살육의 행위이며 ‘역겨운 죄짓기’라는 인식이 극명해진다.

오웬의 이러한 전쟁시에서 표현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대상과 상황에 대한 생경하고 풍부한 비유적 묘사다. 지친 채 행군하는 군인들을 “짐자루에 눌린 늙은 거지 떼”로 보고 “안짱다리로, 노파처럼 기침 짓으며” 걷는 것으로 표현하거나 독가스에 중독돼 몸부림치는 병사를 마치 익사하는 것처럼 그렸다. 중첩되는 직유가 과도하여 실감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생경한 비유는 영시의 기법적인 전통, 크게는 유럽시의 전통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감정을 절제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대상을 그리되 신선한 감각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은 모더니즘, 특히 이미지즘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또한 오웬의 다른 시에서도

1915년에 유럽의 서부전선에서 최초로 사용된 독가스 무기에 대한 사실적 증언이기도 하다. 병사들이 참호전에서 죽는 경우보다 밤에 잠을 자다 독가스에 중독되어 죽는 경우가 많기도 하였고 죽음에 이르는 않더라도 독가스의 후유증이 치명적이었다. 이후에 독가스는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개량되어 살상력이 배가되었다.(조규택, 『제1차대전기 영국 전쟁시 읽기』, 『영미어문학』 제90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09, 100쪽 참조.)

빈번히 활용되는 모순형용어나 반어, 역설은 형이상학과 시인들과 1920~30년대 영미 모더니즘 시인들의 기법과 충분히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딴 친구가 한숨 섞어-“아이구 엄마, 엄마, 아빠!”

그리곤 아이처럼 괜한 웃음 지었다. 죽어서.

드높은 파편 구름이

유유한 몸짓으로-멍청이!

하니까 떨어지는 파편들이 피식피식 웃었다.

“사랑아!” 누가 신음했다. 사랑병에 걸린 기분인 듯.

그러자 천천히 숙이며 얼굴 전부가 진흙을 키스했다.

총검의 긴 이빨이 히죽거렸다.

포탄의 떼거지가 획획 야유했다.

독가스가 쉬쉬 하고 놀렸다.

- <마지막 웃음> 부분

위에서 죽어가는 병사가 “괜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죽으면서 웃음 짓는 모습이 실로 아이러니컬하다. “사랑병에 걸린 기분인 듯” 고통에 신음하다 쓰러지면서 “얼굴 전부가 진흙을 키스”하는 장면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위 시의 제목이기도 한 ‘마지막 웃음’은 무기들의 비웃음으로 시의 반어적인 상황과 맞물려 충격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죽어가는 병사를 향해 총검과 포탄과 독가스가 마치 불량배처럼 히죽거리고 휘파람을 불며 야유하는 모습은 인간에 대한 전쟁의 폭압과 비열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모더니즘을 단일하고 명료한 개념이나 흐름으로 가늠할 수 없지만,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짐작케 하는 표현과 기법이 오웬의 시 전반에 걸쳐 발견된다. 그것은 시에서 겉돌지 않고 주제를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쟁시의 사실성을 유지하면서 전

쟁의 비인간성과 허위성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데 그의 시의 표현과 기법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시에서 모더니즘의 자장은 오웬을 비롯한 오웬 전후의 모더니즘 시인들이 몰두한 아이러니와 역설의 시적 활용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사실성을 넘어 시를 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모더니즘 본연의 문명에 대한 비판적 정신이 부당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부정으로 나아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웬의 전쟁시는 시 자체로 예술적 완결성을 성취하는 한편,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전쟁의 실상을 세밀하게 드러내면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반전시로서 전쟁시의 본질과 지향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Ⅲ. 현장성의 실현과 반전시의 지향 : 전봉건의 전쟁시

전봉건은 전쟁이 발발하자 중동부전선에 위생병으로 참전하였다가 이듬해 부상을 입어 제대하였다. 그는 1953년 『戰線文學』 제6호에 <그렇게 머리가 있는壕>를 게재한 이래, 전쟁기에 쓴 시들을 1959년의 첫 시집 『사랑을 위한 되풀이』에 수록하였다. 1950년대에 창작하였으나 발표하지 않은 전쟁시는 시선집 『꿈속의 뼈』(1980), 『새들에게』(1983)에 실기도 하였다. 전봉건의 시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1961년에 간행된 『韓國戰後問題詩集』에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김춘수와 이어령의 비평에 의해 그의 시는 기교와 현실에 깊은 관심과 탁월한 성취를 이룬 시인으로 평가 받았다.¹⁵⁾ 그의 전쟁시 자체가 현실에 대한 천착에서 연유한 것이

15) 김춘수는 전봉건의 시를 거론하면서, 그를 “훌륭한 테크니상”이라고 상찬하였으며 그의 시가 후반기 동인의 시보다 현실에 밀착되어 있으며, 후반기 동인이 지닌 강한 심미의식에 “휴머니스틱한 人生論”을 더하고 있다고 하였다. (『戰後十年年の 韓國詩-트레이닝의 時代, 『韓國戰後問題詩集』, 신구문화사, 308-309쪽.) 김춘수의 언급은 전봉건의 시 <어느 토요일>에 대한 분석에서 이어지는데, 이

라 할 때 기교에 대한 관심은 모더니즘의 영향과 연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5時나는壕속에있다水筒手榴彈鐵帽縫帶壓迫縫帶帶劍그리고M1나는내가壕속에서틀림없이滿足하고있다는사실을다시한번생각해보려고한다BISCUITS를씹는다오늘은이상하게5時30분에또피리소리다9時方向13時方向나는BISCUITS를다먹어버린다6시밤아지는敵稜線으로JET機가쉽게急降한다나는잠자지않은것과BISCUITS를남겨두지않은것을後悔한다6時20分大隊OP에서連絡兵이왔다포켓속에뜯지않은BISCUITS봉지가들어있다6時23分해가떠오른다나는野戰삽으로壕가장자리에흙을더 쌓아올린다나는한뼘만큼더깊이壕밑으로가라앉는다野戰삽에가득히담겨지는흙은뜯지않은BISCUITS봉지같다

- <BISCUITS>

이 시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제거하고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대개의 서정시와 다르게 시인이 표현하려는 대상에 대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지적인 태도, 다시 말해 정서나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상을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적 화자가 위험한 전쟁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기보다는 담담한 태도와 어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 이성적인 제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엇갈린 반응이나, 시 속의 띄어쓰기를 무시한 시행은 일종의 시적인 기교로 낯은 표현 방식이나 시적 의미를 뒤집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과이다. 여기에서 모더니즘이 주로 구사하는 기교, 즉 조작된 언어 구사를 통해 시에 신선하고 강한 울

작품은 1953년 『문예』에 게재되었지만 『韓國戰後問題詩集』에는 수록되지 않은 시이다. 이 시에선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의 평화로운 일상과, 소식으로만 전해지는 한국의 전쟁 상황이 몽타주처럼 생경하게 겹치고 시점이 갑자기 뒤바뀌는 등 실험적인 기법이 나타난다. 한편 이어령은 그의 시가 기교와 현실 모두 고려한 시인이며, 전쟁시를 쓴 시인들과 함께 언어적 측면에서 전쟁용어를 구사함으로써 시대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戰爭詩에 대한 노트 二章', 같은 책, 324-329쪽.)

림과 의미를 주려는 방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모더니즘의 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교는 시인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어진 현장성의 구현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BISCUITS>의 시적 화자는 참호 속에 놓여 있다. “나는내가壕속에 서틀림없이滿足하고있다는사실을다시한번생각해보려고한다”는 부분은 방어적인 의미를 풍기며 시적 화자가 무척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노출한다.¹⁶⁾ 시적 화자의 ‘불만족’은 단지 허기와 피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터가 바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공간이며 시적 화자가 위치한 호가 자연스럽게 ‘무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날이 점점 밝아지는 시 속의 구체적인 시간은 새벽을 맞는 희망찬 시간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시적 화자가 직접 호 주변의 흙을 쌓아올려서 “한뼘만큼더깊이壕 밑으로가라앉는” 하강의 시간은 곧 죽음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호라는 공간 구조를 통해 죽음의 시간을 예비하는 모습과 아울러, 적의 동태로 의식할 수 있는 “피리소리”나 적 능선으로 급강하하는 “JET기” 등 현장의 대상들이 시와 어울려 전쟁의 현장성이 더 공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시가 ‘한 뼘’이라는 미소한 단위를 통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형상화했다면, <0157584>는 시적 화자 내면의 급격해지는 불안과 공포를 거리 단위로 수량화하기도 하였다.

100 야드 나는 포박하였다.

90 야드,

나는 射程을

16) 서동인은 이 시에서 화자가 호 속에서 ‘극도의 정신적인 분열과 공황’ 속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비스킷을 씹는 행위는 정신적 공황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서동인, 『전봉건 시의 생명 인식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21집, 반교어문학회, 2006, 305쪽)

80 야드로

壓縮시켰다.

65 야드.

나는 60 야드로

壓縮시켰다.

나는 狙擊兵의 正照準 위에 놓였다.

나는 마지막 수류탄을

던졌다.

.....

파발 맥심 自動小銃의 一齊 射擊이 내 심장 높이를

통과하는

45 야드.

나는 머리를 들었다

壓縮.

(...)

계속되는 無限軌道の 자국과 電話線

헛바닥에 膠着하는 BISCUITS.

지난 밤엔 射程이 고정되어 가는 火網 위에 銀河水가 흘렀다.

그리고 水筒이 四方으로 날았다.

(...)

山허리에 反射하는 日光.

BAR의 連射.

비둘기의 똥냄새 中東部戰線.

나는 有效射距離圈內에 있다.

나는 0157584이다.

- <0157584> 부분

위의 장면은 실제 전투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으로, 적진을 향해 일정한 거리만큼 진격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저격병이 시적 화자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 진격은 긴장되고 급박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적진과의 점점 줄어드는 거리만큼 불안과 공포가 배가되고 있다. 즉 외부의 거리가 내면의 감정 폭과 반비례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속되는 전투 상황으로 긴장 때문에 비스켓에 헛바닥이 달라붙고 결국 수통이 포격으로 사방에 튀는 장면도 실감나는 상황이지만, 아름다운 은하수 아래 사격의 화망(火網)이 집중되는 장면은 전쟁의 폭압 앞에 자연이 손상되는 상황이 절묘하게 나타난 부분이다. 그리고 수류탄을 던져지고 적의 총알이 비껴가는, 시적 화자가 ‘有效射距離圈內’에 선 위태로운 장면이 단조롭게 묘사됨으로써 전투 현장이 오히려 더 극명해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이 시의 제목처럼 인간이 군번으로 대체되는 전쟁의 비인간적인 국면과 더불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전장의 위태로움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을 제거한 건조한 진술이 오히려 비극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이 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85밀리였다.

不發彈 한 알이 굴러내렸다.

나는 進出하였다. 11時 方向으로 40分間이 지나고…… 나는 正面 낮은 稜線 위에서 가만히 落下하는 따발총을 보았다.

나는 다시 왼쪽 눈을 감았다. 숨을 그쳤다.

손가락이 다시 내가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第1步哨線으로 보였다.

나는 또 한번 160 야드의 射程을 재어보았다.

나는 그와 擊發要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

얼굴에 흙과 풀뿌리와 돌조각이 와 닿았다.
가쁜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夜間砲擊이 끝난 아침에 飛行雲이 걸려 있었다.
파리와 탱크와 地雷原周邊에서 바람이 곤두섰다.

*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소새끼가 죽었을 게야……”
헬리콥터가 南으로 기울어져갔다.
그는 그의 산골짜기가 北으로 7 마일 가량 남았다고 하였다.
19時 半 쯤이었다.
그는 재미나는 追擊戰에서 웃으며 달리다가
꼬꾸라졌다. 狙擊이었다.
눈을 감았다.
그는 왼쪽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
-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 부분

앞의 <0157584>나 인용하지 않은 <그렇게 머리가 있는 壕>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에 잘 나타나는 것은 전쟁의 실감나는 현장성이다. 적과 마주한 형편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방아쇠를 당기고, 포격 때문에 돌조각을 얼굴에 뒤집어쓰는 모습은 전쟁시에서 보기 드물게 생생한 현장감을 주면서 시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에서 시적 화자의 동료인 ‘그’는 전쟁터 근처에 고향을 둔 인물이다. 거둬해서 고향에 두고 온 송아지를 걱정하던 그는, 전투 현장에서 돌연히 죽음을 당한다. “재미나는 추격전에서 웃으면서 달리다가”라고 표현된 부분은 일종의 반어로, 갑자기 쓰러지는 그에 대한 묘사는 앞의 행위가 드러내는 밝고 가벼운 느낌과 대비되어 더욱 놀라운 비극으로 비춰진다. 제목에서 제시되듯 그의 죽음을 초점으

로 삼은 이 시는 전투 행위 장면의 현장성과 조화를 이루어 전쟁에 희생되는 개인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준다. 결국 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은 전쟁의 비정함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자, 시인의 전쟁에 대한 반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전봉건은 현실을 개혁하고자 시 밖에서 행동하는 시인은 아니었다.¹⁷⁾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를 통해 현실의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봉건의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반전의 태도는 그의 전쟁시에 두드러지는 현장성과 함께 1950년대 남북한에서 발표된 숭한 전쟁시와 대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좀 더 자세한 비교가 필요하지만, 당시 많은 전쟁시가 전쟁을 독려하고 각 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타의 전쟁시에서는 간혹 전투 현장을 묘사할 때에도 이념적인 통제나 상투적인 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를 볼 때 1950년대 남북한의 전쟁시가 전쟁시의 관습성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비해 1950년대에 쓰인 전봉건의 전쟁시는 전쟁 체험을 살리면서 현장성을 독특하게 구현하였으며 전쟁의 비극성을 심도 있게 드러내었다. 특히 전쟁의 상황과 개인 내면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인간의 상황을 충격적으로 묘사하여 자연스럽게 전쟁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17) 전봉건은 “시가 어떤 한 시대를 선도하는 구실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든가, 시는 어떤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든가—하는 생각이나 믿음이나 주장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다. (….) 시란 하할 것 없이 무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물건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혹은 인류가) 그 수많은 암흑과 절망과 혼란의 수렁에서 다치고 쓰러지고 몸부림쳤을 때에 그의(혹은 그들의) 내부의 핵심에서 끊이지 않는 가락을 다 내는 ‘노래’로서 있어온 것이 시라는 견해에는 수긍을 한다.”고 하여 시가 ‘주장’은 아니지만 ‘노래’로서의 힘으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숨을 쉰다고 말하였다.(전봉건, 『斷想』, 『전봉건 시선』, 탐구당, 1985, 237쪽.)

IV. 나가며

전쟁 영웅을 칭송하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던 기존의 세계 전쟁시의 양상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쟁의 비인간성을 일깨우면서 점차 평화를 회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시가 인간을 위해 종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최고의 전쟁시는 최고의 반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명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윌프레드 오웬은 처음에 전쟁을 긍정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전쟁을 체험하면서 전쟁의 실체를 뼈저리게 깨달은 뒤, 전쟁의 진실을 간파하고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적나라하게 그린 시를 창작하였다. 특히 왜곡된 애국심을 심어 줬던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탐욕스런 위정자들을 비판하였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애국주의에 의한 학살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일례로 <즐겁고 함당하도다>에서는 전쟁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묘사하여 전쟁의 일상적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쟁이 곧 죄악이라는 처절한 인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마지막 웃음>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전쟁의 부당함을 웅변적으로 설파하였다. 오웬의 전쟁시는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전쟁을 부정하는 한편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한 시적 완결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전쟁시의 본질과 지향점을 보여준다.

6·25전쟁을 소재로 한 남·북한의 전쟁시는 대체로 전쟁시의 관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몰개성적이고 관습적인 표현들이 두드러지는 한편 관념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며 극한 대립을 하였지만 시가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시인 자신이 속한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남·북한의 전쟁시가 남과 북의 대립을 조장하고 예술로서의 본질을 망각하는 동안에 전봉건의 전쟁시와 같이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물론 전봉건은 현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발언하고 현실을 개조하려는 시인은 아니지만 그의 시

속에는 자연스럽게 전쟁을 부정하는 휴머니티가 드러나 있다. 또한 시인이 직접적인 전쟁 체험을 통해 시 속에 현장성을 적절히 살렸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1950년대 한국 전쟁시에서 그의 시가 하나의 시도로서 이채로운 빛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봉건은 전쟁에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전장의 상황을 묘사하는 시를 썼다는 점에서 오웬의 시와 공통점을 지니고, 기법적으로도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 그는 전쟁 체험을 살려 전장을 묘사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을 독특한 방식으로 성찰하였다. 특히 모더니즘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의 상황을 굴절된 내면의 정황을 통해 포착하였다. 즉 <BISCUITS>이나 <0157584>, <그리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지 않았으나 앞의 작품과 유사한 <장난>, <ONE WAY> 등의 시에서와 같이, 오히려 외적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내적 반응으로서의, 감정을 거의 제거한 독백적 진술이나 상황과의 모순된 대응 태도,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묘사를 통해, 비정하고 폭압적인 전쟁 현장과 그 속에 선 위태로운 개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리하여, 전봉건의 시가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성을 띠지 않지만, 내면적 현실을 실감 있게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쟁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1950년대 전쟁시의 한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춘조사, 1959.
『전봉건 시선』, 탐구탕, 1985.
『전봉건 시 전집』, 문학동네, 2008.
Owen, Wilfred, 이상섭 옮김, 『오웬 전집』, 해원출판사, 2001.

(2) 참고자료

- 김명인, 「전봉건 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10.
김선학, 「한국 전후시의 일고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논문집』 제5집, 1986, 23-38쪽.
김성조, 「전봉건 시에 나타난 존재 상실과 극복 세계」, 『한국문학의 연구』 제35집, 한국문학연구회, 2008, 69-94쪽.
김윤정, 「전후 전봉건 시의 환상성 연구」, 『현대문학이론과 비평』 제2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3, 365-384쪽.
김종길, 「전쟁과 시-일차대전과 영국전쟁시-」, 육군중군작가단, 『전선문학』 제4호, 1953, 6·9·10-15쪽.
김 현, 「시와 시인을 찾아서-전봉건 편」, 『심상』, 1974. 6, 110-115쪽.
문영수, 「WILFRED OWEN 연구-방법론적인 고찰과 더불어-」, 『인문논총』 제19집,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1989, 155-167쪽.
민병기, 「1950년대의 시와 6·25」, 『어문논집』 제32집, 안암어문학회, 1993, 45-73쪽.
박슬기, 「전봉건 시론에 있어서 시의 현대성」, 『관악어문연구』 제30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5, 187-205쪽.
박태일, 「1950년대 한국 전쟁시 연구」, 『경남어문논집』 5, 1992, 37-82쪽.

- 박혜숙, 「6·25 한국전쟁과 현대시」, 『시문학』 제383호, 시문학사, 2003. 6, 151-167쪽.
-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 연구-반공텍스트의 기원과 고백의 정치학-」, 『우리어문연구』 제27집, 우리어문학회, 2007, 385-418쪽.
- 서동인, 「전봉건 시의 생명 인식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21집, 반교어문학회, 2006, 299-329쪽.
- 신영덕, 「6·25 한국전쟁과 문인들의 종군활동」, 『정신전력연구』 제30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6, 163-184쪽.
- 오세영, 「6·25와 한국전쟁시」, 『한국 근대문학론과 근대시』, 민음사, 1996, 296-349쪽.
- 오세영, 「한국전쟁 문학론」, 『한국 근대문학론과 근대시』, 민음사, 1996, 493-520쪽.
- 윤호병, 「한국전쟁과 전쟁시」, 『비교문학』 제18집, 한국비교문학회, 1993, 44-69쪽.
- 이건청, 「비극적 현실과 긴장의 언어-전봉건의 시」, 『현대시학』, 2001. 9, 150-167쪽.
- 이상섭, 「윌프레드 오웬: 연민의 시」, 황동규 외, 『현대영미시연구』, 민음사, 1986, 105-129쪽.
- 이승원, 「한국 전후시 연구」, 『인문논총』 제1집,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8, 113-128쪽.
- 이승하, 「6·25전쟁 수행기의 한국시 연구-『전선문학』 발표 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42호, 배달말학회, 2008. 6. 30, 93-125쪽.
- 이승훈, 「6·25체험의 시적 극복」, 『현대시학』, 2002. 7, 274-287쪽.
- 이현희, 「전봉건 시 연구-시적 화자의 상흔(trauma)의 변이과정-」, 서강대 석사논문, 2000.
- 임도한,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전쟁시」, 이기운·신영덕·임도한,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국학자료원, 2003, 11-69쪽.

- 정수연, 「전봉건 시 연구-전쟁 체험과 관능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0.
- 정원채, 「한국전쟁 시기 남북한 전쟁시 비교 연구」, 『한성어문학』 제24집, 한성대출판부, 2005. 8. 24, 119-141쪽.
- 조규택, 「전쟁과 연민: 휘트먼과 오웬의 전쟁시 읽기」, 『영미어문학』 제83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07, 113-134쪽.
- 조규택, 「모운숙의 서사적 전쟁시와 오웬의 사실적 전쟁시 비교」, 『동서비교문화저널』 제16호, 한국동서비교문학회, 2007, 227-248쪽.
- 조규택, 「제1차대전기 영국 전쟁시 읽기」, 『영미어문학』 제90호, 한국영미어문학회, 2009, 89-110쪽.
- 한경희, 「한국전쟁기 전쟁시의 국가주의의 시선」, 『한국시학연구』 제21호, 한국시학회, 2008, 201-228쪽.
- 홍용희,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시적 대응 비교 고찰」, 『한국시학연구』 제2호, 한국시학회, 1999. 11, 338-368쪽.

<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Owen and Jeon Bong-Geon's War Poetry

Lee, Seung-Gyu

War poetry deal with the War mainly and in the modern times, it appeared to express facts of war. Wilfred Owen, English poet, participated in the first war and shaped his experience into war poetry. His war poetry has the description of the horrors of war and the negative cognition of war. In his poetry, he manifests the proposition that “The best war poem is the most antiwar poetry.” When the 1950's Korean War, most of the war poems published in North Korea were that extolled the hero of war and aroused hatred to encourage war. For these poems have a strong finality, they describe the battle field as a reality and are prominent for an ideological. As compare with them, South Korea's poems display the individual feeling or humanity. But as Owen's poems, it is hard to seek war poems which have a reality or oppose to war by overcoming the old political awareness. When the war broke out in Korea, Jeon Bon Geon was in the service and wrote the poems described the situation of the war and which is similar to Owen and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Modernism for technic. Jeon Bong Geong imaged the oppression of war and dangerous individual by the inner monologue, the abnormal attitude and the description which distance from object rather than

expressed the horrors of war realistically. Although his poems did not have the active denial, he make the inner shock and was against to the war by reflecting the reality immaturely.

Key Words : War poetry, Owen, Jeon Bong-Geon, Korean war, the Tendency of Spot, Antiwar

■ 논문접수 : 2010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7월 28일
■ 게재확정 : 2010년 7월 31일